“힘겨운 삶들 향한 응원 담았죠”

완도 출신 강애영 작가
소설집 ‘네모 쇼핑센터’ 펴내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 일상
고통 속 희망 이야기 하고 싶어

‘조물주는 인간을 창조했고, 작가는 인물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다. 작가의 임무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작품 속에 구현하는 데 있다. 소설 속에서 그 인물과 함께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201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강애영 작가가 최근 ‘네모 쇼핑센터’(실천문학)를 펴냈다.

완도 출신의 강 작가는 이번 작품집 발간 배경에 대해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작가들이 비슷한 상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상상은 신의 세계를 탐구한다”며 “신은 부조리하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상상을 자주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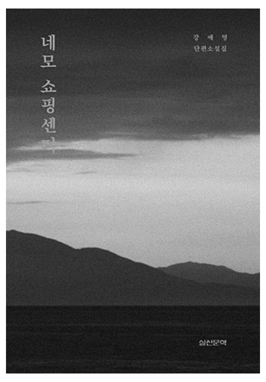
4년만에 펴낸 이번 작품집에는 모두 7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7편은 마치 무지개처럼 각기 다른 빛깔들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소설은 대체로 리얼리즘 경향을 띈다. 작가는 리얼리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부조리한 세상, 소설 속 인물들이 처한 고통의 삶을 주목했다.

강애영 작가

‘5번의 다이어리’는 오늘의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담았다.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려야 하는 작금의 세태를 반영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명징한 표기로, 번호가 이를 대체한다는 것은 몰개성화, 분자화의 사회를 의미한다.

이외의 작품은 운동권 세대가 처한 삶, 회한의 시간을 그린 작품 등이 포함돼 있다.



표제작 ‘네모 쇼핑센터’는 세월호 구원파를 모티브로 했다. 침몰 사고와 유병언의 도피행각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당시 아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그가 세월호 때 혹시 유병언의 도피를 돕지 않았을까, 나름 상상하며 쓴 소설”이라고 했다.

‘제막식’은 인혁당 사건 때 희생당한 분과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배의 이야기를 병치한 소설이다. 작가는 “안타깝게도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이들에 대한 삶을 다뤘다”고 했다.

현재 작가는 작품 창작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학원 일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는 “광주대 대학원 문창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며 “논문을 쓰는 중인데 상반기에 마친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작가는 “아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이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젊은 친구도, 장년층도 다들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그 기로가 모두에게 희망의 다른 길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지난 201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한밤중에 민서는’으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우리의 민이’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독립운동가 최한영 선생 일대기

한국학호남진흥원, 평전 발간…나라·시민 보호 위해 일평생

독립운동가이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목정(牧亭) 최한영(1899~1990) 평전이 최근 발간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발행한 ‘독립운동가 최한영 평전’은, 박해현 박사가 저자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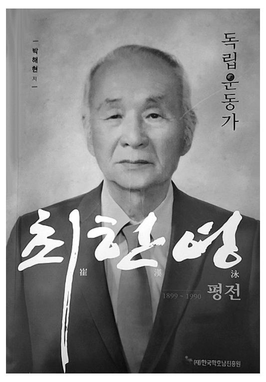
저자에 따르면 최한영은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 시위 주체였던 비밀결사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었다. 신문잡지종람소는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 인쇄 장소를 제공해 광주 3·1운동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최한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한영은 1899년 5월 15일 광주 사동 146번지에서 최양섭과 정운남 사이에 2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공립광주보통학교에 입학하던 1909년은 남도 의병 활약이 절정에 다다를 때였다. 공립광주보통학교를 거쳐 광주농업학교에 입학한 최한영은 국권 피탈 등의 영향으로 굳건한 항일의식을 갖게 되었다.

3·1운동 관련 고초를 당했음에도 최한영은 사회운동에 앞장섰으며 일제의 자본침략에 맞선 활동을 펼쳤다.

이후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비롯해 신간회 결성 등에 앞장섰고 광주상공회의소 전신 광주상업회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사회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을 동시에 실천해 독립운동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진력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80의 노구에도 시민수습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의 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1990년 8월 6일 90세를 일기로 타계했을 때는 광주시민장으로 대전 국립묘지에 모셔졌으며, 동년 12월 26일 건국훈장 애족장(제2570호)이 추서됐다.

저자 박해현은 “時·空을 초월하여 전개된 그의 삶은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의 삶의 조각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역사적 평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친손녀인 수필가 최은정은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으시던 생전의 모습이 뚜렷하다”며 “조국 해방과 더불어 권세와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누옥에서 서도와 국악과 궁도에 몰두, 선비로서 청빈 고고한 삶을 사셨다”고 회고했다.

한편 평전을 쓴 박해현은 전남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사학과(문학박사)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라남도 마한문화권개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영암 의병사 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톳길 앞에서 펼쳐지는 맨발의 버스킹

‘모두애(愛) 황토길 맨발 버스킹’
12일 순천 석현동 향림골 경로당 앞
지역 예술인 음악·낭송 등 다채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이 순천에서 열린다.

‘제2회 모두애(愛) 황토길 맨발 버스킹’이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순천시 석현동 향림골 경로당 앞 잔디밭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석현동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맨발 황톳길’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꾸며지며,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시낭송가 오연이 씨의 주최로 열리며, 다양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음악과 낭송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모두애(愛) 황토길 맨발 버스킹’이 지난해 6월 열려 지역예술가들이 재능기부 공연을 선보였다.
〈오연이씨 제공〉

크로스오버 지휘자 이우연 씨의 무대로 공연이 시작되고, 박수영 플루티스트의 플루트 연주, 김상복 시인의 시낭송, 조흥현 연주자의 아코디언 연주, 김명남 씨의 시조창 등이 이어지며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연이 시낭송가는 “이번 공연이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재능을 펼칠 기회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손길로 정성껏 가꿔진 황토길에도 많은 관심과 발걸음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인기 웹소설 작가에 도전 해볼까?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웹소설 창작’ 17일까지 작가 지망생 모집

‘선재 업고 튀어’부터 ‘내 남편과 결혼해줘’, ‘중증외상센터’까지.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영화 상당수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이 지역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웹소설 창작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웹소설 등 원천 스토리 IP 산업 육성을 위해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는 17일 오후 4시까지 모집.

플랫폼 연재를 목표로 작품을 준비 중인 광주 지역 웹소설 작가 혹은 작가 지망생이 대상이다. 최대 2인으로 구성된 팀도 지원한다.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정통 및 현대판타지, SF, 호러, 스릴러 등 창작 웹소설이라면 자유롭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높은 작품, 사행성 요소가 포함되는 등 비윤리적인 소재는 제한한다.

사업은 총 10팀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가(팀)에게는 5월부터 10월까지 최소 300만원 최대 720만원의 웹소설 창작 지원비가 주어진다. 현직자 멘토링과 홍보 마케팅, 창작시설 및 장비 등 다양한 성장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수민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기반팀 책임은 “광주 지역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무한한 상상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작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